

특 집 | 사서들이 꿈꾸는 도서관

# 그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일을 꿈꾼다



신 선 주\*

나는 오늘도 사서의 '현실' 과 '이상' 이라는 괴리 속에서 혼돈을 겪으며 자료실의 문을 연다. '오늘' 이라고 주어진 시간동안 내가 열고 시작한 이 자료실의 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갈 수 있을까 상상해보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책이 없다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 쪽지 한 장 던져주며 모든 걸 다 찾아내라는 사람들, 보고 싶은 책은 모두 꺼내서 탑을 쌓아놓고 나갈 때는 의자 하나 놓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 자료실 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공부를 할 수 없게 하느냐며 목소리를 드높이는 사람들, 열 번 스무 번 이용규칙을 설명해도 듣지 않고 그건 규칙에 불과한 것이라며 불편한 것 투성이라고 말하는 불만 섞인 목소리들... 이런 모습과 목소리들이 머릿속에 먼저 스쳐지나가는 하루 일과가 5년이 지난 내게는 아직도 버겁기만 한 일부분이다.

'사서가 꿈꾸는 도서관' ... 참으로 이상적인 말이다. '사서가 꿈꾸는 도서관' 으로 만드는 일 또한 전국에 있는 모든 사서가 바라는 이상적인 일일 것이다. 그 이상적인 일이 왜 이상으로서만 끝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은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매일 절실히 느끼고 또 느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예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수치로 환산해 내야 하는 실적, 그리고 도서관이 도서관다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

\* 광진정보도서관 사서, sj0825@gwangjinlib.seoul.kr

을 거듭하면서 뭔가를 더 얻기보다는 ‘포기’와 ‘타협’ 쪽에 더 길들여지게 되는 자신을 보게 된다. 이런 자신을 볼 때마다 ‘사서’라는 직업을業으로 삼는 미래를 길게 내다볼 때 슬퍼지는 것이다.

몇백명씩이나 되는 이용자의 대출, 반납과 맞은 실업무를 시간을 쪼개가며 하면서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건, 내가 부지런히 한달을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목록과 정보를 보고 반색을 하면서 반기는 이용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었고, 행사를 준비하고 마무리 할 때마다 그동안 도서관이 해야 할 서비스를 많이 받지 못해서 작은 행사에도 너무 감사해 하고 행복해 하는 이용자들을 볼 때마다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 ‘사서’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용자들에겐 작은 힘이나마 도서관과 함께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환경을 좋게 하고, 책을 많이 구비하고, 멀티미디어 환경이 잘 되어 있는 도서관일 수록 이용하는 이용자는 삶의 질 또한 분명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도서관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듯이 도서관의 인적구성인 ‘사서’에게도 달라져야 하는 위상과 삶의 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서’와 ‘이용자’가 모두 행복해지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이 ‘이상’이 될지 ‘현실’이 될지 여부는 첫째로, 많은 부분 ‘사서’와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몫이다. 사서는 사서대로 이용자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운영자는 운영자대로 도서관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만든 도서관이니까... 아니면 맡은 업무만 하면 되니까... 하는 식의 자신의 입장만을 위한 목소리를 낸다면 서로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도서관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질 것이다.

요즘은 모든 곳에 ‘고객서비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다. 이용자를 고객처럼 대하며 진정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오는 말일 것이다. 진정한 서비스는 고객(이용자)과 내부고객(사서, 도서관직원)이 서로 만족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회사나 기업이 성공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사장과 직원이 바라보고 지향



하는 곳이 같아야 되듯이,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이용자와 사서가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아야만 좋은 도서관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도서관 내부에서 사서 각자의 자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기개발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이끄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선배사서는 후배사서를 이끌어 주고 같이 고민하며 '도서관'에 대한 생각을 '하나'로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일하는 도서관의 한 예를 들어보면 개관초기부터 자발적인 스터디를 운영해 왔었다. 스터디 이름도 PIL(Play In Library)이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도서관을 사랑하며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자는 마음이 강했었다. 그래서 휴관일에 타 도서관 견학도 가보고, 도서관이나 이용자서비스 관련 논문이나 책을 읽고 토론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건의나 토론도 해보고, 도서관 리플렛을 영문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애착심도 더 생기고 서로에 대한 생각도 넓히면서 관계를 돈독히 한다.

이용자는 '함께 가꿔나가는 도서관'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 걸음씩 바뀌어야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닌, 자신의 책임과 참여와 관심의 몫임을 인지하여야 하고, 우리는 '관'이라는 특성의 권위적인 이미지 탈피를 위한 노력 또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꿈꾸는”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이 그리되기를 바라거나 꾀하다’이다.

과연 '사서'라는 이름으로 내가 진정 바라고 꾀하는 게 무엇인지 마음속 깊이 되물을 때이다.

보다 더 많은 이용자들의 눈을 도서관으로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뛰고 있을 많은 공공의 사서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